

무주반딧불축제, 전북 대표축제 됐다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시범 운행

생태·환경축제로 민생경제 안정 활성화 기여 호평... 인센티브 1억원 확보

무주반딧불축제가 2024년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주관 전라북도)되는 영예를 안으며 1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는 축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을 위한 동력이 돼 무주반딧불축제가 전북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무주군은 콘텐츠와 조직역량,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관리 체계, 민족도 조사 등의 현장평가를 비롯해 2023년 축제 추진 결과와 2024년도 축제계획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기획 및 콘텐츠, 운영, 발전역량, 효과 등) 한 것에서 두루 호평받으며 전라북도 대표축제가 됐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소재로 자연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선보이며 대체 불가능한 생태환경축제로는 명성을 쌓았다.

올해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완성하며 그 위상을 높였다. 행안부 차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경제 안정 및 활성화 모범 사례로 언급되기



무주반딧불축제가 2024년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됐다.(사진은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입장 퍼레이드 모습)

도 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42만 명이 방문해 15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최우수자치단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발발곡곡 100선'에 선정 되기도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는 무주군 대표 브랜드이자 관광상품으로서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을 견인할 자원"이라며 "전북의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2024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 간 개최될 예정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가치 공유'를 주제로 하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1박 2일 생태탐험'과 '반딧불 소풍'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체계적 도시숲 조성 위한 방안 제시

진안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27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농촌경제국장, 산림과장과 용역보고 관련 부서 팀장 등이 참석해 추진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와 향후 체계적인 녹색 공간 조성 기본구상과 비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관내 도시숲 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꾸고 이용·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군민 및 도시숲 심의 위원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했으며 사업추진 시 체계적으로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용역사인 (유)에스 김상희 대표가 10년 계획에 맞춘 지속가능성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을 바탕으로 용역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관내 신규 대상지 및 기존 대상지의 리모델링 구상 방향으로 기능 및 유형에 나누고, 합



리적인 가로수 수종과 기 식재 수목의 수형변화 등의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방안을 모색하여 더욱이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방향을 보고했고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춘성 군수는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군의 녹색이미지를 잘 갖추어 푸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경관디자인으로 색다른 이미지를 구축하고 가로수, 생활숲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림과를 비롯해 각 협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마이산 겨울동화축제 성료

진안군은 지난 23~24일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된 '2023 마이산 겨울동화축제'가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거꾸로 고풍이 유니콘 뽀이 되었어요!'를 슬로건으로 해 마이산 탐사에서 생기는 신비한 역고드름 현상을 홍보하고, 오천초등학교 꼬마작가 도서관을 팝업으로 운영해 작은학교 살리기에 동참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많은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진안군원 브랜드 홍보에 앞장섰다.

하안나라 겨울 놀이터에는 얼음으로 만들어진 썰매장과 미끄럼틀 등 놀거리, 소극장에는 인형극과 가족공연 등 볼거리, 그 외 겨울간식과 농특산물 등 살거리까지 알차게 구성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추운 날씨에 주변 관광시설에서 언 몸을 녹이며 쉬어가는 공간으로 활용돼 1석2조의 효과를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내년 1월 1일부터 장수~산서~오수 구간 운행 시작

장수군이 농어촌버스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노선 개편 계획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장수~산서~오수 노선에 대한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노선 개편의 주요 내용은 △장수, 무주, 진안 3개 군으로 운영되던 통합노선 분리 △주요도로 간선 위주로 농어촌버스 운행 △농어촌버스와 행복콜 중복 운행 구간을 최소화 등으로 군은 읍·면 소재지, 인근 시·군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 운행 노선(장수~산서~오수)의 주요내용은 기존 8회 운영되던 농어촌버스를 16회 운영해 1시간에 1대 배차가 가능해졌으며, 첫차(06:30)와 막차(21:00) 버스시간을 확대 운영해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출퇴근시간대에는 30분 간격으로 탄력운행을 실시해 군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을 완화했다.

다만, 이번 농어촌버스 개편이 간선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버스 이용의 수요가 없는 일부 마을에 대해서는 노선이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되는 마을의 경우 읍·면내 마을과 소재지의 이동은 행복콜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시범 운행 이후 운영 노선에 대한 조정과 보완을 거쳐 탄력적인 운

장수 - 산서	산서 - 장수	산서 - 오수
6:30	13:30	6:35
7:10	14:30	7:35
7:30	15:30	7:55
8:30	16:30	8:55
9:30	17:30	9:55
10:30	18:30	10:35
11:30	19:30	11:35
12:30	20:30	12:35

장수군 버스 노선 개편 시간표

영으로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이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선 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며, 나머지 노선(장수~진안, 장수~무주)의 경우 2024년 내 순차적으로 노선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선체계 개편과 함께 앞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재구축과 버스 승강장에 대한 보수 정비도 실시해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준철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노선체계 개편이 장수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돼 앞으로 장수군민의 교통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선 개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무직장여객(063-433-5282) 또는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63-350-2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2024년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독려

장수군이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소유권 및 등록지역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차(2022년 7월 이전 출시) 소유자다.

연납신청은 2024년 1월 1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및 환경위생과 전화접수(063-350-2548)로 신청하면 된다. 이전에 연납 신청 및 납부한 자는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부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납이 아닌 정가(3월, 9월)로 부과되어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주민중심 마을복지 체계 활성화사업 성과공유

진안군은 27일 산악초터운에서 관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철, 이하 읍면협의체)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중심 마을복지체계 활성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2023년 11개 읍·면 협의체 각각의 마을 복지 성과를 발표하고, 2024년에 읍면별로 새롭게 자체 수립한 마을복지계획의 목표와 중점과제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 스스로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계획·실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진안군에서는 지난 2021년 3개 읍·면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11개 읍·면 전 지역에서 마을 복지계획 수립 및 여러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인사말에서 "바쁜 중에도 우리 이웃을 위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시킨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수고와 힘이 우리 진안군 복지 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업지원사업 담은 책자 발간·배포

무주군은 "2024년도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책자를 발간, 지난 26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농업 관련 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영농철 현장의 날 지도 운영, 반딧불농업대학 운영,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운영,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농업기계 임대 등 농업지원과 소관 지원부터

△토양검정실 운영을 비롯한 사과 병해충 예방 방제 시범과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등 기술지원과 지원 내용, △농촌 일손돕기 지원과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원, 사과 반사필름 지원, 반딧불한우 배넛소 지원, 가족방역약품 지원 등 농업정책과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또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과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귀농 농업창업 지원 등 농촌활력조성사업 조성 등 산림복지과 지원 등 총 185개 사업에 대한 내용과 신청 기한 및 장소, 방법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부록에서는 △정보제공자 신청 및 공급, 토양을 비롯한 잔류농약 시료 채취 및 분석의뢰 방법, 농약 피해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절차 안내, 미생물 사용요령,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황재창 기술기획팀장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시범)사업과 변화된 농정시책 등을 담아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아는 만큼 보이고 지원받는 만큼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책자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책자 관련 문의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063-320-2841~5)를 비롯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